

관지 유형을 통해 본 조선 후기 백자의 외래 요소

장효진

張孝眞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한국·중국 도자사

I. 머리말

도자에서 款識는 작은 요소지만 여러 중요한 정보를 내포한다. 일반적으로 기년 혹은 생산·소비 주체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해 도자의 생산 연대, 지역, 성격 등을 가늠케 한다. 그러나 일부 관지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를 수 있어 의심 없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편년 및 성격 규명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유형이 아닌 새롭게 출현한 것의 연원과 계통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기존 도자사 연구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외래양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 주로 문양 및 기형, 제작기술·환경에 집중해 고찰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조선 후기 백자에 나타난 중국 자기의 한 요소로 연호 기입을 포함해 관지와 관련된 사례도 거론되어 주목된다.¹ 이에 본고는 조선 후기 백자에 새롭게 등장한 관지 자체에 보다 더 집중하여, 이를 조선 후기 백자의 외래적인 성격과 외래 요소의 유입 경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 삼아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 백자에 외부 영향으로 새롭게 나타난 관지는 과거 명 선덕(1426~1435), 만력(1573~1619) 왕조 연호를 후대 방제한 ‘大明宣德年製’, ‘萬曆年製’

* 필자의 최근 논저: 「18~20세기초 中國 靈芝草花文 靑畫白磁의 유행과 전파」, 『美術史學研究』 282, 2014, 6.

¹ 조선 후기 분원리 백자에 ‘咸豐年制’, ‘道光三十年’, ‘大明宣德年製’, ‘萬曆年製’와 같이 연호관을 기입하거나, 명문 주위에 원권을 시문하는 방식이 중국 자기 영향인 것으로 거론되었다. 최경화, 「朝鮮後期 分院里 時期 官窯白磁 研究」(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132.



年號款, 그리고 명 청대 민요에서 시작되어 주로 민간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던 도안화된 문자, 문양 형태의 吉祥款과 圖案款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조선 후기 분원에서 제작된 왕실용 백자를 비롯해 고급 백자에 주로 새겨졌으며, 사례 또한 드물어 제한된 수요층이 향유한 백자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전대 연호관이 후대 방제된 것은 명 초 관요 양식에 연원을 두지만, 명대 중기 이래 징더전(景德鎮) 민요를 중심으로 민간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편 길상관, 도안관은 연호관과 다르게 민요에서 시작되어 민간을 중심으로 유행해 내수용 민간 자기뿐 아니라 수출용 자기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상술한 이 명 청대 관지들이 조선에서 모방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모방 선례를 찾아볼 수 있기에, 출현 경로와 계통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관지 유형들의 연원과 파생 경로를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유행이 공유되었던 일본 도자에서의 양상을 함께 비교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새로운 외래 요소가 국내 유입되는 데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1
〈백자청화투각연당초 팔괘문연적〉
조선 18세기 높이15cm
국립중앙박물관

1-1
도1 저부

II. 과거 年號款의 방제

1. 선덕 연간(1426~1435) 공예품에 대한 숭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청화투각연당초팔괘문연적〉¹⁾의 굽 안쪽에는 두 단으로 ‘大明宣德年製’가 섬세한 필치로 새겨져 있다. 이 연적은 정교하게 제작된 고급품으로 조선시대 백자 중 과거 중국 연호가 관지로 새겨진 흔하지 않은 사례

2
〈백자청화보상당초문완〉
명 15세기 높이5.6cm
징더전 주산 어기창 성화
(1465~1487)만기층 출토
江西省景德鎮市陶瓷考古
研究所
필자촬영



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궁중용뿐 아니라 민간용, 외수용 공예품에서도 선덕, 성화(1465~1487), 가정(1552~1566) 연호관을 방제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후대에 과거 연호관을 방제한 현상이 언제부터 출현하였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조선 후기 도자에까지 나타난 선덕 연호관 방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먼저 중국에서의 선덕 연호관 방제 사례를 살펴보겠다.

중국에서 선덕 연호관을 방제한 가장 이른 사례는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징더전 珠山 어기창 유적 성화 초기층에서 출토된 ‘大明宣德年製’가 새겨진 〈청화사자희구문완〉으로 알려져 있다.²⁾ 그리고 성화 후기층에서 출토된 〈청화보상화문완〉 역시 이른 사례로서, 동일한 보상화문 청화백자에 ‘大明成化年製’가 새겨진 것 15점, ‘宣德年製’가 새겨진 것 16점이 발견되었다²⁾. 즉, 중국 도자에서 선덕 연호관이 방제된 것은 성화 관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과거 왕조 공예 수준에 대한 흥미·동경의 뜻이지, 기만하려는 태도는 아니었을 것이라 해석될 바 있다.³⁾

이러한 해석처럼 과거 선덕 시기 공예품에 대한 칭송은 16세기 이후 여러 민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⁴⁾ 주목해 볼 만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다.

2) 보고자는 성화 층위에서 발견된 이 출토품과 주산남로 선덕 층에서 발굴된 동일한 양식의 선덕자기를 비교했을 때, 굽의 두께 및 형태, 청화 발색, 관지에서 성화시기 제작품이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景德鎮市陶瓷考古研究所·徐氏藝術館, 『成化遺珍: 景德鎮珠山出土成化官窯瓷器』(香港: 徐氏藝術館, 1993), p.20.
3) 劉新園, 『明宣宗與宣德官窯』, 『景德鎮出土明宣德官窯瓷器』(鴻禧藝術文教基金會, 1998), pp.181-182.
4) 呂成龍의 글 ‘第四章 后世對永樂, 宣德御窯瓷器的品評’에 정리되어 있음. 呂成龍, 『明永樂, 宣德時期景德鎮御窯瓷器概說』, 『永宣時代及其影響-兩岸故宮第二屆學術研究會論文集』上(北京: 故宮出版社, 2011), pp.135-140.

서화는 송대 것이 귀했는데, 30년 이래 갑자기 원대 것이 귀해졌다. 예찬부터 명 심주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10배 올랐다. 도자기는 가요, 여요가 귀한데, 15년 이래 갑자기 선덕, 영락, 성화 자기가 귀해져 가치가 10배 올랐다. 오인이 시작하여 휘인이 이끌었는데 이상한 일이다.⁵

오늘날 용천요는 다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징터전에서 제작하여 천하에 쓰인다. 해마다 내부에서 한 벌씩 하사하는데 밑에 기년호가 있다. 오로지 선덕 관제가 가장 아름답고 지금까지 150여 년간 그 가치가 송대 기물과 같다. 가정이 다 음이고, 성화가 그 다음이다.⁶

명대 각 황조 자기의 우열을 가리며 특히 선덕, 성화시기 자기를 높게 사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명 초 관요자기는 송대 名窯 자기와 비견되기도 하였으며, 송대 자기가 골동으로써 수장 대상이 된 이래 명 초 자기가 그 계보를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주목되는 내용은 골동·서적 수집 등 문인문화가 만연했던 강남지역에서 명 초 자기 수장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구매력을 갖춘 휘주인들이 중심이 되어 십수 년 사이에 그 가치가 큰 폭 상승했다는 언급이 당시 사치스러웠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명 초 관요자기를 숭상하는 풍조는 청대까지 이어졌다. 다음은 청대의 요리서 『隨園食單』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옛 말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요리가 아름다운 그릇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옳은 말이다. 따라서 명대의 선덕 황제 때, 성화 황제 때, 가정 황제 때, 만력 황제 때의 도자기 등은 매우 비싸서 깨뜨리면 손해가 막심하므로 모든 그릇은 청나라 황실의 어요에서 생산하는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이런 자기들은 모두 맑고 정교하다.⁷

⁵ “書當重宋，而三十年來忽重元人，乃至倪元鎮以逮明沈周，價驟增十倍。窯器當重哥，汝，而十五年來忽重宣德，以至永樂，成化價亦驟增十倍。大抵吳人濫觴，而徽人導之，俱可怪也。” 王世貞(1526~1590), 『觚不觚錄』, 『叢書集成新編』第85冊(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86); 呂成龍, 위의 글(2011), p.137.

⁶ “今龍泉窯世不復重，惟饒州景德鎮所造，遍行天下。每歲內府頒一式，度紀年號于下。然惟宣德款製最精，距迨五十年，其價幾與宋器埒矣！嘉靖次之，成化又次之”，謝肇淛, 『五雜俎』(上海: 國學珍本文庫, 1935); 呂成龍, 위의 글(2011), p.137.

『隨園食單』은 청대 시인 袁枚(1716~1797)가 40여 년간 모은 음식 관련 자료 및 각계 각종 사람들과 교류하며 알게 된 인상적인 음식에 관한 철학을 적어 놓은 것이다. 위 구절은 요리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계명 가운데 그릇 선택의 방법(器具須知)을 논한 구절이다. 기명과 밀접한 요리에 관한 서적에 등장하기에 더욱 주목되는데, 저자는 명대 선덕, 성화, 가정, 만력시기 자기를 당대 황실 기명에 견줄 수 없는 훨씬 우위로 평가해 이목을 끈다.

명 초 자기 방제품 제작 사례도 확인할 수 있는데, 명대 후기에는 ‘崔公窯’와 같은 이를 전문적으로 방제하는 민간 가마가 출현하기도 하였다.⁸ 또 진품은 극히 적은데 방제가 많아 혼란스럽다는 기록도⁹ 전해져 흥미롭다. 결국, 본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관요 양식의 외부 유출이 엄격히 금지되었던 경직된 분위기가 점차 유연해지며,¹⁰ 민간에서도 이를 자유로이 품평하거나 수집·방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민간에서 선덕관지를 비롯해 과거 연호관을 후대 방제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생산유적인 명대 중후기 징터전 觀音閣요지¹¹의 경우, 가정 시기 층위부터 사례가 확인된다. 그리고 해외 소장 중국 수출자기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말라카의 포르투갈 정부기관이 주문한 ‘대명선덕년제’가 시문된 〈백자청화문장문발〉의 기면에는 1541년이라는 연대도 기록되어 있어 특히 이목을 끈다.¹² 즉, 내·외수용 민요산 자기에 선덕 등 과거 연호관을 방제한 것은 16세기 초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⁷ “古語云 美食不如美器，斯語是也。然宣，成，嘉，萬窯太貴，頗愁損傷，不如竟用御窯，已覺雅麗。” 袁枚, 신계숙 역, 『隨園食單』(교문사, 2015), pp.39-40.

⁸ “崔公窯 嘉隆間人，善治陶，多仿宣成窯遺法製器，當時以爲勝，號其器曰崔公窯，四方爭售，諸器中惟蓋式較宜，成兩窯差大，精好則一。餘青彩花色悉同，爲民陶之冠。” 남포, 임상열 역, 『역주 경덕진도록』(일지사, 2004), pp.208-209.

⁹ “磁窯起于柴世宗，迄今將近千年。徒傳柴窯名之名所謂兩過天青者，已不可問矣。嗣后惟官，哥，汝，定，其價甚昂，間亦有之，然而不易多得。若成窯五彩，暗花而體薄者。鷄缸一對，價值百金，亦難輕購，本無多也。再則宣窯最佳，一時稱盛，而眞者甚少，因嘉，萬曆間，本朝使仿，極易混淆，劉廷璣, 『在園雜志』卷四; 熊寥 主編, 『中國陶器古籍集成』(南昌: 江西科學技術出版社, 2000), p.87.

¹⁰ 명 초 관요 양식의 민간 유출 계기와 확산에 대한 배경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장효진, 「18~20세기 초 中國 靈芝草花文 靑畫白磁의 유행과 전파」, 『美術史學研究』282(2014), pp.121-124.

¹¹ 가정 층위에서 ‘宣德年造’, ‘宣德年製’명, 만력(1573~1619) 초중기층에서 ‘大明宣德年製’명, 만력~승정 층위에서 ‘大明成化年造’, ‘大明成化年製’, ‘成化年製’명이 방제된 출토품을 확인할 수 있다.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景德鎮市陶瓷考古研究所, 「江西景德鎮觀音閣明代窯址發掘簡報」, 『文物』(北京: 文物出版社, 2009. 12), pp.39-58.

¹² 毎日新聞社, 『トプカブ宮殿の名品-スルタンの愛した陶磁器』(東京: 毎日新聞社, 1995), p.33.



한국 용인 임진산성¹³에서도 '대명선덕년제'명이 시문된 <백자청화 '大明宣德年製'명범자문완편>^{도3}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굽 안쪽에 시문된 '明'자에 '月' 종획을 3획 그은 실수가 있고 '製'자도 덧쓴 흔적이 보이지만, 차분한 필치가 나쁘지 않아 한자를 쓸 줄 아는 장인이 시문한 것으로 보인다. 내저 중심에 시문된 범자는 '大日如來'(vam)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⁴ 지금까지 이 출토품을 선덕자기로 인식하여, 세종(1418~1450)~선덕 재위기간 조선에 중국 청화백자가 특히 많이 전래되었던 사실과 관련해 제시되기도 했다.¹⁵ 그러나 이는 16세기 중후반경 과거 선덕 연호관이 방제된 경덕진 민요품으로 추정되는데, 우선 선덕 관요기와 비교했을 때 굽 모양이 다르고, 주문양인 범자 또한 간격과 굵기가 일정치 않아 조잡한 느낌을 자아낸다.¹⁶ 그리고 특히 만력시기를 전후로 민간에서 선덕 연호관 방제가 널리 이루어졌고 범자문자기도 유행했던 정황상, 이는 명대 중후기 민요에서 제작된 선덕 연호관 방제품으로 여겨진다. 또 같은 임진산성에서 출토된 <백자청화 '長春佳器'명모란문편>¹⁷과 동일한 계통으로 볼 수 있는 자기편이 징터전 관음각요지 가정~만력층위에

3
 <백자청화 '大明宣德年製'명범자문완편>
 명 16세기 높이 7.3cm
 임진산성 출토
 경기도박물관
 필자촬영

3-1
 도3 내면

¹³ 경기도박물관·삼성물산주택부문, 『龍仁 壬辰山城 緊急發掘調査報告書』(2000).

¹⁴ 밀교의 금강계 만다라성신회의 중심부에 大日如來가 있는데(綜芸舎編集部, 『梵字入門: 仏教美術考古学研究者のための』, 綜芸舎, 1967, p.27), 자기완의 문양이 가장 잘 보이는 내면 중심부에 이를 의미하는 범자가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¹⁵ 경기도박물관·삼성물산주택부문, 앞의 보고서(2000), p.133; 金英媛, 「韓國과 中國의 陶磁交流, 10~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국 도자』(예경, 2007), p.36; 田勝昌, 「15~16世紀 朝鮮時代 京畿道 廣州 官窯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228.

¹⁶ 이와 관련해 江建新(景德鎮市陶器考古研究所), 王光堯(故宮博物院) 두 선생의 자문을 구했다. 지면을 빌어 感謝를 표한다.

¹⁷ 경기도박물관·삼성물산주택부문, 앞의 보고서(2000), p.133, 304, 사진 127·128.



4
 孫克弘
 <叢窓清玩圖卷> 부분
 1593년 종이에 설색
 20.5×318.5cm
 중국 首都博物館

동 애호 풍조에 따라 방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기형, 장식, 관지 시문 방법은 만명기 이후 스타일이 옛보이나, 선덕 연호관을 새겨거나 이미 새겨진 관지를 긁어내고 과거 연호를 다시 새겨 넣었다.¹⁸ 또 회화자료 중 孫克弘(1533~1611)의 <叢窓清玩圖>^{도4}에 등장하는 채소, 과일, 어해 등 완물 가운데 '宣德年造'가 써진 백자 어항이 있어 주목된다.¹⁹ 이 백자 어항이 선덕 시기 진품인지 후대 방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문인 애호품과 함께 그려진 것은 만명기 민간에서 선덕기 공예품을 애호했던 현상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이어 조선에서도 18세기경에 이르면 선덕 공예품 애호현상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문헌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徐浩修(1736~1799)의 『燕行紀』 중 선덕, 성화 자기가 보물과 같이 귀하다고 언급된 내용이 확인되며,²⁰ 세손시절 정조가 어렵게 구한 태호석을 선덕로와 함께 소중히 소장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¹⁸ 陸鵬亮, 「宣爐辨疑」, 『文物』(北京: 文物出版社, 2008. 7), pp.64-92; 張麗, 「宣德漆器之我見」, 『永宣时代及其影响: 两岸故宫第二届学术研讨会论文集』上(北京: 故宫出版社, 2012), pp.17-32; 楊勇, 「故宮博物院藏宣德款嘉靖款漆筆管年代管窺」, 『文物』(北京: 文物出版社, 2015. 2), pp.51-60.

¹⁹ 이는 만명기 문인의 완물취미와 소비문화가 적극 반영된 작품으로서 세부적으로 분석된 바 있다. 유순영, 「손극홍의 청완도: 명 말기 취미와 물질의 세계」, 『미술사학』42(2014), pp.143-171.

²⁰ "이 기와와 벽돌과 동그런 우물 난간은 500여 년이나 지난 옛 물건인데도 사람들은 그것 보기를 요즈음 나무나 벽돌과 다름없이 한다. 만약 저 선덕, 성화 때의 자기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 처음은 다 흠에 불과한 것이었다. 물건은 질에 의탁하는 것인데, 한 자 한 치의 차이로 귀천이 판이해진다. 그리고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눈짐작으로 고하를 정하며 저울을 바르게 하는 이가 적다. 나는 대략 옛것을 고증하여 그 시비를 명목하게 하는 것이다." 徐浩修, 『燕行記』 卷3, '起圓明園至燕京', 正祖 14年(1790) 8月 26日.

洞庭의 서쪽에서 나는 돌을太湖라 하는데 (중략) 내가 이것을 매우 열심히 구해 오다가, 갑오년 봄에 이것을古苑에서 얻어 가지고 깨끗이 씻어 밝은 창문 앞에 놓아두니, 藥罐, 香甌, 文王鼎, 宣德爐와 더불어 엄연하게 나란히 배열되어서, 이 주먹 만한 크기의 돌 하나가 일천巖壁의 빼어남을 능히 다 온축하였다.²¹

그러나 실제 선덕시기 관에서銅爐가 대량 제작된 것이 확인된 바 없어 현재까지 그 원본에 관해 설명하기 어려운 전설처럼 남아있고,²² 선덕 연호관이 새겨진 동향로는 만명기에 대량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커, 위 기록에 등장하는 선덕로 실체가 불명하다. 또 함께 언급된 文王鼎을 비롯해 상주시대 청동기 삽도가 수록된 『博古圖』, 『考古圖』는 특히 명대 후기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²³ 선덕로가 최초로 언급된 『宣德鼎彝圖譜』의 별본인 『宣德彝器圖譜』²⁴에도 방고 도상으로 ‘倣古周文王鼎’이 등장한다. 일부 내용이 원본과 달라지기는 하나, 이러한 고기물이 수록된 서적이 상품으로서 만명기 시장에 널리 유통되었고, 여기에 등장하는 각종 양식의 청동 기형은 당시 동기와 자기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²⁵

그러므로 조선에 소장되었던 중국 과거 동기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명대 만기 고대 기물 방제가 크게 유행하였던 중국의 정황상, 위 조선 기록에 등장하는 기물 역시 후대 방제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 洪大容(1731~1783)이 청에 “樽과 彝는 선덕이 많다”²⁶고 한 것이나, 曹命采(1700~1764)가 일본의 관소 안에서 ‘대명선덕년제’가 시문된 정교하지 못한 청동화로를 보았다는 것²⁷ 역시 만명기 이후 민간에서 제작된 倣宣德 공예품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朴趾源(1737~1805)은 중국 민간에서 각 시대 절정으로 꼽히는

예술품만 좇는 현상을 비판하며 위조품이 수백 가지 나온다고 언급했는데,²⁸ 선덕 고동기 또한 이에 포함되어 있다. 즉, 조선에서도 중국 민간에 심각한 수준으로 방제가 이루어졌던 상황을 인지하며, 선덕 공예품의 특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대 중후기 이래, 중국 민간에까지 고대 동기 및 명 초 자기 등 골동 방제가 매우 유행했던 정황상, 조선인이 듣거나 실견한 선덕 공예품이 모두 진품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현실적으로 진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수한 방고동기와 당대 제작된 방제품까지 골동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처럼,²⁹ 조선도 분원산 자기에 ‘대명선덕년제’를 새김으로써 골동품에 버금가는 가치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18세기 이후 조선에 북학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 숭상 풍조가 남아있어 과거 명대 연호관의 방제가 행해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2. 조선과 일본의 만력(1573~1619) 연호관 방제

조선시대 청화백자 가운데 중국 과거 연호관이 방제된 또 다른 사례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청화 ‘萬曆年製’명화문발〉³⁰을 들 수 있다. 1847년 헌종 가례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한 양식으로 이 한 점에만 굽 안쪽에 ‘만력년제’ 연호관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반듯하고 정교하게 쓴 臺閣體를 추구한 듯한 관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며, 주어진 공간에 비해 필치가 대담하지 못하다.

그런데 중국에서 만력 연호관이 후대에 방제된 것은 선덕, 성화, 가정 연호관이

21 『弘齋全書』卷4, 「春邸錄」4, ‘太湖石記’.

22 『古色: 十六至十八世紀藝術的仿古風』(台北: 國立故宮博物院, 2003), p.82, 231.

23 Robert Poor, “Notes on the Sung Dynasty Archaeological Catalogs,” *Archives of the Chinese Art Society of America* 19(Asia Society: University of Hawai’i Press), p.37, pp.43-44.

24 이 圖譜은 명 선덕 3년(1428)의 工部 문서로 전해지나, 명대 만기 제작된 僞書라는 견해가 다분하다. 陸鵬亮, 앞의 글(2008), pp.66-67 및 注12, 13, 14, 15 참고.

25 余佩瑾, 「形色之古—晚明《遵生八牋》的陶瓷鑑賞」, 『古色: 十六至十八世紀藝術的仿古風』(台北: 國立故宮博物院, 2003), p.301.

26 “樽彝多宣德”, 洪大容, 『湛軒書』, 「內集」卷3, ‘詩 次孫蓉洲有義寄秋詩韻仍贈蓉洲’.

27 “館中有青銅小爐. 制樣不甚巧. 而其底刻以大明宣德年製六字”,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 英祖 24年(1748) 4月 9日.

28 “나는 이 그림에 발문을 지은 것이 이미 여러 번이었다. 모두 다 구영의 그림이라 일컫고 있으니, 어느 것이 진품이고 어느 것이 위조품인가? 중국의 강남 사람들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정에 어두우니, 이 두루마리 그림이 동쪽으로 압록강을 건너온 것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글씨는 왜 꼭 중요, 왕희지, 안진경, 유공권이라야 하며, 그림은 어찌 꼭 고개지, 옥담미, 염립분, 오도자라야 하며, 古鼎과 彝器는 어찌 꼭 五金으로 만든 선덕 연간의 제품이라야만 하는가? 진품만 찾기 때문에 위조품이 수백 가지로 나오는 것이니, 비슷할수록 가짜가 많다. 용복사나 옥하교에 가면 손수 글씨나 그림을 그려서 나와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아한지 속된지를 대충 가려서 사 두면 된다. 향로로 말하면 건륭 연간의 제품이라도 모양이古怪하고 敦厚한 것만 취한다면 북경 시장에서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燕巖集』卷7 別集, 「鍾北小選」, ‘湛軒所藏清明上河圖跋’.

29 許雅惠, 「晚明的古董知識與仿古銅器」, 『古色: 十六至十八世紀藝術的仿古風』(台北: 國立故宮博物院, 2003), pp.53-54.



5
〈백자청화 '萬曆年製'명
화문발〉
조선 19세기 높이12cm
국립중앙박물관
최경화 촬영

6
〈백자청화 '萬曆年製'명
크락자기편〉
일본 18세기중반~19세기
도시키다니 3호요 출토
(『枳敷窯・年木谷3號窯』,
도23-25)

방제된 것에 비해 찾아보기 쉽지 않다.³⁰ 오히려 17세기 말~18세기 초중반 일본 아리타(有田)에서 제작된 고급자기 중 다수 확인되어 흥미롭다. 내수용 고급품으로 전해지는 색회·청화자기에 '大明萬曆年製'가 시문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정교할 뿐 아니라 관지 역시 필체의 막힘이 없다.³¹ 그리고 이와 다른 계통으로 여겨지나 아리타 도시키다니(年木谷) 3호요에서 18세기 중반~19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백자청화 '萬曆年製'명크락자기편〉^{도6} 또한 출토되어 관심을 요한다.³²

그렇다면, 일본에서 만력시기 기명이 어떤 의미였기에 중국에서도 타 연호관에 비해 널리 방제되지 않았던 만력 연호관이 일본에서 방제된 것일까. 만력시기를 전후로 한 명대 중후기는 민요가 내·외수용 자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던 때다. 명대 중후기 대표 민요인 징터전 관음각요지 출토품을 살펴보면, 가정 연간 이후 실행된 관탑민소³³로 자기 제작 일부를 위탁받아 제작된 어용자기를 비롯해 일본이 주문한 자기편도 있다. 또 만력 층위에서는 크락자기편도 발견되어 수출자기 역시 활발히 생

30 명대 중후기 이래 중국 민간에서 명대 초기, 즉 영락, 선덕, 성화, 가정 연호관 방제가 우세했는데, 이는 중국 민간 기록 중 도자기가 우수하게 평가된 시기와 거의 상통한다. 본 논문 주4와 동일함.

31 佐賀縣立九州陶磁文化館, 『紫田コレクション總目錄』(佐賀縣立九州陶磁文化館, 2003), 도2387, 2399, 2417, 2447, 2452 외 참고.

32 有田町教育委員會, 『枳敷窯・年木谷3號窯』(1997), p.75.

33 王宗沐, 『江西大志・陶書』 중 "陶監有官 先是中官一員專督 嘉靖九年 裁格...官匠因循 管廠之官 乃以散之民窯 歷年相仍"에 근거하여 가정 연간에 官搭民燒가 정식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趙宏, 「官搭民燒考」, 『故宮博物院院刊』1(紫禁城出版社, 1996), pp.81-82; 劉毅, 「論官搭民燒與明嘉靖民窯青花發展及藝術新風」, 『中國陶瓷』47(景德鎮: 中國輕工業陶瓷研究所, 2011. 5), pp.83-85.



7
〈백자청화 '長命富貴'명완편〉
명 16세기
징터전 관음각요지 출토
江西省景德鎮市陶磁考古
研究所
(『江西景德鎮觀音閣明代窯
址發掘簡報』, 『文物』, 도22)

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⁴ 명 중기 이래 일본에 오채자기를 비롯해 크락자기 등 중국 민요 자기가 대량 유입되었는데, 특히 일본의 기호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주문된 자기³⁵ 또한 유통되어, 일본이 중국 수출 자기의 주요 소비국가로 고정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전세되는 명 중기 이후 제작된 중국 수출 자기 양상을 살펴보면, 특히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채색 자기가 선호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만력 연간 징터전 민요에서 생산되었던 오채자기(嘉靖赤繪·萬曆赤繪), 또 여기에 금채로 장식을 가한 킨란데(金欄手)가 일본에서 애호되었다. 결국, 앞서 언급한 아리타산 고급 색회·청화자기에 '대명만력년제' 관지가 방제된 것은 일본이 특히 가정·만력시기, 즉 명대 중후기 중국 자기를 깊이 애호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징터전산과 유사한 양식의 푸젠(福建) 장저우(漳州) 일대 민요에서 제작된 수출용 오채자기(吳州赤繪, Swatow Ware)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지가 없는 조질 자기이기 때문에,³⁶ 일본이 내수용 고급품에 특히 선망하여 방제하고자 했던 중국 자기는 연호관이 시문되어 있는 징터전 자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또 다른 사례로 앞서 언급한 아리타 도시키다니 3호요에서 출토된 〈백자청화 '萬曆年製'명크락자기편〉^{도6}에 주목해 보겠다. 이 유물 역시 만력 연호관이 방제되었으나, 상술한 '대명만력년제'가 시문된 고급 색회·청화자기 일군과는 다른 계통으로 보인다. 도6의 경우 관지가 북남동서 방향으로 네 자 시문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명대 중기 징터전 민요에서 유행이 시작된 이래 지속된 것으로 여겨진다. 징터전 관음각요를 비롯한 민요에서 銅錢모양과 같이 중앙에 네모난 구멍을 그리고 북남동서 방향으로 '長命富貴'를 시문하거나^{도7}, 중앙 구멍은 생략하고 북남동서 방

34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景德鎮市陶磁考古研究所, 앞의 글(2009. 12), pp.39-58.

35 일본에서 이른바 '赤繪', '祥瑞'라 칭하는 유물군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또 개별적인 사례로 일본의 한 가문이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三田世家'가 새겨진 편이 징터전 관음각 양전오(秧田塙)요지에서 발견된 바 있다. 曹建文, 「景德鎮窯址で近年發見された古染付及び祥瑞について」, 『陶說』(東京: 日本陶磁協會, 2011), pp.38-40.

36 吳其生, 『明清時期漳州窯』(福州: 海峽出版發行集團・福建人民出版社, 2015).

향으로 4자 관지를 시문하는 방법이 널리 이루어져,³⁷ 이러한 관지 유형의 유행이 지속되며 중국 민요뿐 아니라 일본에까지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아리타산 <백자청화 ‘萬曆年製’명크락자기편>^{도6} 관지는 일본이 특히 만력기를 비롯해 명대 중후기 자기에 대한 우호로 주문양과 상관없이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1891~1900년 영국 웨지우드



社 상품 중에도 ‘장명부귀’ 관지를 주문양으로 응용한 사례가 나타나^{도8}, 유럽 자기에 미친 명대 징더전 민요산 수출자기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본 절 서두에서 언급한 조선산 <백자청화 ‘萬曆年製’명화문발>^{도5}의 일부 문양에서 중국과 일본 자기에 나타나는 요소가 모두 엿보인다.³⁸ 대표적으로 꺾자면 외벽에 등간격으로 화형 창을 내어 도안화된 화문을 시문하고, 사방 모서리를 볼륨감 있게 처리한 크락양식을 일본에서 1770년대 이후 내면 문양과 상관없이 외면에만 크락양식을 차용한 자기에서 볼 수 있다.³⁹ 그리고 외벽 하단에 ‘OX’가 반복되는 보조문양대는⁴⁰ 17세기 후반 징더전 민요에서 수출용으로 제작된 청화백자완의 구연 혹은 저부에서 찾을 수 있으며,⁴¹ 18세기 중반 이후 제작된 아리

8
<백자 ‘長命富貴’명자기세트>
영국 1891~1900년
Wedgwood
잔높이 5.3cm 개인소장

37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景德鎮市陶瓷考古研究所, 앞의 글(2009. 12), p.55.

38 <백자청화화문발>의 장식문양대 및 내저문양에 드러나는 18~19세기 일본 자기의 영향은 다음 글을 참고 할 수 있다. 김기혜, 「조선 후기 크락(Kraak) 양식 청화백자 연구」(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76-83.

39 佐賀縣立九州陶磁文化館, 앞의 책(2003), 도3659, 3676, 3864, 3877 참고.

40 『續修四庫全書』史部金石類에 기록된 주대 청동기 도상 일부에서 구연과 저부에 작은 원이 줄지어진 형태의 보조문양대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보조 장식은 공예품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OX문양대’ 또한 이에 연원을 두며 변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미나 중 장남원 교수님께 아이 디어를 제공받았음을 밝힌다.

41 Topkap Saray Muzesi, *Chinese ceramics in the Topkapi Saray Museum*, Istanbul: a complete catalogue 3(London: Published in association with the Directorate of the Topkapi Saray Museum by Sotheby’s Publications; New York, NY: Available in the USA from Sotheby’s Publications, Harper and Row, 1986), 도2071, 2073 참고.

타 자기에도 나타난다.⁴² 그러므로 조선에서 제작된 <백자청화 ‘萬曆年製’명화문발>^{도5}에 보이는 여러 외래 문양이 중국, 일본과의 복합적인 관계에 의해 발현된 것이라면, ‘만력년제’ 관지 역시 단순히 특정 시대나 지역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명대 수출자기의 영향력이 지대했고 일본이 이를 적극 수용하였기에, 차후 조선에 일본도자 양식이 유입되며 일본의 중국 특정 시기, 즉 만력시기 기물에 대한 애호 분위기가 역시 함께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자 한다.

한편 조선시대 기록 중 만력 연호관이 시문된 자기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파손되면 복원해 사용할 정도로 소중히 다루었다는 내용⁴³과 소중히 여기는 술잔에 만력 연호관을 발견하고 놀라워하는 장면이 있어⁴⁴ 조선인이 만력자기를 귀히 대하는 모습을 가늠하게 한다. 따라서 조선 역시 골동에 대한 애호·숭상 분위기가 지속되며 차후 이를 방제하는 행위 중 하나로 조선백자에 과거 만력 연호관을 방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III. 다양한 관지 유형의 출현과 확산

1. 길상관

길상관은 자기에 새겨진 길상의 의미를 가진 글귀나 단문을 가리키며 축복을 표시하는 관지로서 吉言款이라고도 부른다. 명대 청화자기의 길상관은 명대 중후기 민요에서 크게 유행했고, 청대에는 일반적으로 명을 답습했다.⁴⁵ 본 절에서는 길상관 중에서도 낙관형태로 ‘福’, ‘祿’을 시문한 사례에 집중해 보겠다.

42 佐賀縣立九州陶磁文化館, 위의 책(2003), 도3402, 3450, 3631, 3757 참고. 제시된 시바타(紫田) 컬렉션 참고 도판 중 3450을 제외하고 모두 굽이 높고 기벽이 벌어지는 형태의 개완, 일본에서 이른바 ‘광동식완’이라 칭하는 기형에 OX문양대가 확인된다. 따라서 일본에서 OX문양대를 중국 자기의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중국식 기형에 의식적으로 이 문양대를 장식한 것이 아닌지 재고를 요한다.

43 “聖兒持獻唐畫杯, 杯底有大明萬曆年製六字, 而中間破裂, 纏繫以鐵絲, 少無漏隙, 感而有吟”, 南龍翼, 『壺谷集』卷八 七言絕句.

44 “家有一枚畫盞, 乃青檀舊物, 而華美異凡器, 余甚愛重, 每有美酒, 以此酌之, 蓋寶物不薦於褻味之意也, 一日偶見其下面, 有大明萬曆年製六字, 余惕然驚喜, 不覺心眼俱開, 自此每對之”, 沈潮, 『靜坐高集』卷十二.

45 馬希桂, 김재열 역, 『중국의 청화자기』(학연문화사, 2014), p.415.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자청화만자문다각접시>⁹는 바닥면과 측면이 총 11각으로 내면에 만자형 紗綾文이 가득 시문되었으며, 굽 안쪽에는 청화로 그린 낙관이 있다. 낙관형태의 방형 테두리 안에 새겨진 한자는 '복' 혹은 '록'이 변형된 형태로 추정된다.

낙관형 '복'자 길상관은 명 초부터 민요에 등장하였다. 공식적인 발굴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비교적 이른 사례로 베이징 毛家灣교장에서 출토된 정덕(1506~1521)시기 징터전 민요품을 들 수 있으며⁴⁶, 관음각요지 성화~정덕 층위에서 관지로 쌍방형 안에 '복', '正'이 새겨진 편이 발견된 바 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길상관이 관음각요지 인근 陽府山요지에서도 출토되었으며,⁴⁷ 이 외 민간 일상용 조질 자기를 대량 생산했던 일부 징터전 민요에서도 제작되었다.⁴⁸ 그런데 길상관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부터, 징터전 湖田窯 일대를 포함한 명대 민요에서 기물의 내저 중심에 주문양으로 '복', '壽', '善', '光' 등 길상자를 장식한 청화백자가 적지 않게 생산되어 주목된다.⁴⁹ 따라서 내저중심의 주문양이었던 이 길상자를 굽 안쪽 관지

9
<백자청화만자문접시>
조선 19세기 높이 3.3cm
호림박물관
(『湖林博物館所藏朝鮮白磁名品展』, 도193)

9-1
도9 저부

46 北京市文物研究所, 『毛家灣: 明代瓷器考古發掘報告』(北京: 科學出版社, 2008), 도128, 179.
47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景德鎮市陶瓷考古研究所, 앞의 글(2009. 12), p.56.
48 景德鎮市文化(文物)局, 『景德鎮市文物誌』(2007), pp.53-54, 57-58. 명대 요업했던 징터전 繞南古瓷窯址, 南泊古瓷窯址 등 일부 요장에서 확인된다.
49 湖田窯, 瑤里窯, 觀音閣窯, 董家塢窯, 繞南窯, 長明窯 등 징터전 민요에서 확인된다. 景德鎮市文



10
<色繪祥瑞梅花文皿> 저부
명말 구경 19.8cm
일본 이데미츠미술관
(『中國陶磁: 出光美術館藏
品圖錄』, 도910)

11
<백자청화방형향합>
명 17세기 초 높이 6.5cm
Peggy and Richard M.
Danziger Collection
(Trade taste &
transformation
: Jingdezhen porcelain
for Japan, 1620-1645, 도15)

자리로 이동시키면서 동일하게 길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 아닌지 싶다.⁵⁰

한편 이데미츠미술관(出光美術館) 소장 <色繪祥瑞梅花文皿>¹⁰을 비롯해 명말청초 징터전 민요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손즈이(祥瑞) 중에서도 낙관 형태의 '복', '록'자 길상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 유입된 손즈이와 17세기 이후 일본 자기에 길상관 방제가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일본에서는 1610~1650년 쌍방형 안에 '복'자 관지가 처음 출현하며, 1640~1690년경 쌍방형 안에 전서·해서·초서로 쓴 '복'자 길상관, '太明', '太明年製', '太明成化年製', '宣德年製'가 새겨진 기명이 출현했다.⁵¹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 도자에 특히 낙관형 '복'자 길상관이 시문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일본에 길상관 자기 유입이 적지 않았고, 그 영향력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을 시사한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중국 민요에서 일본 수출용으로 제작된 손즈이에 특히 방형 혹은 원형 틀 안에 만자, 격자, 귀갑, 동전 문양 등 직물 짜임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¹¹. 이와 같은 직조 문양은 원대 수출용 청화백자의 보조문양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이 계통이 도자에서는 원대부터 본격적으로 응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러한 직물 문양이 특히 명대 중기 이후 민요에서 제작된 크락자기를 비롯해 유럽용 수출자기, 일본 수출용으로 제작된 오채자기나 손즈이에 보조문양으로뿐 아니라 배경의 큰 면적을 차지하며 주문양 격으로 출현하는 점이 주목된다¹¹. 각종 직조 패턴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복식은 물론 건축, 목조, 도자, 서적 등 문양에 장기간 유행했지만, 특히 일본에서 여러 문양으로 크게 발전하며 대중적으로

化(文物)局, 위의 책(2007), pp.3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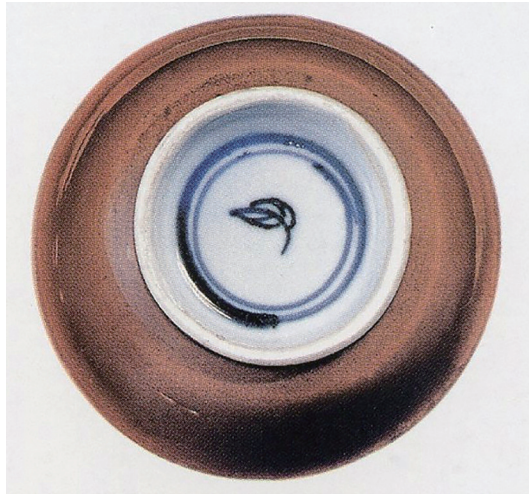
50 선행연구 중에서도 정덕시기 제작된 <청화절지모란문호> 굽 안에 새겨진 쌍관이 둘러진 '복'자를 설명하며, 명 초에는 '복'자가 완이나 접시의 내저에 시문되었고 중기 이후에는 굽에 관지로 시문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王紹英·石青, 『店藏明代景德鎮民窯青花瓷器』, 『華夏考古』(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河南省文物考古學會, 1995. 3), pp.107-108.
51 村上伸之, 『肥前における明・清磁器の影響』, 『貿易陶磁研究』19(日本貿易陶磁研究會, 1999), pp.65-84.

유행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⁵² 일본 도자에서도 17세기 중반부터 늦게까지 여러 종류로 변형되어 매우 활발히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앞서 살펴본 조선산 <백자청화만자문다각접시>^{도9} 역시 주문양으로 만자형 사릉문이 시문되었는데, 특히 중국이 일본의 기호에 따라 제작한 손즈이에 이러한 식물 패턴이 주문양으로 활발히 활용되었다는 점과 다각접시⁵³라는 기형 특성상, 조선산 <백자청화만자문다각접시>에 일본 자기와의 영향관계가 엿보인다. <백자청화만자문다각접시>^{도9}에 새겨진 '복' 혹은 '록'자로 추정되는 길상관 역시 일본 자기에 늦게까지 유행하였다는 점에서, 길상관이 명대 민요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를 수용한 일본의 영향이 조선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2. 도안관

도안관이란 관지를 새김에 있어 문자 형태가 아닌 우의를 함유한 문양이나 도안을 관지로 한 것으로, 팔괘, 태극도, 팔보, 금기서화, 팔길상, 팔선지물, 4송이 꽃, 동물류, 식물류, 방형의 豆腐款 등 매우 다양하다.⁵⁴ '記號款', '圖記款'으로도 불리는데, 개인 혹은 집단이 사용한 부호로 짐작되며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민간 도공의 편의상 민요에서 널리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도안관은 명대 출현했지만 청대 더욱 성행했다. 이와 관련해 강희 16년(1677) 민요에 연호관 사용을 금지하는 '年款禁畵' 선포를 계기로 오히려 도안관을 포함해 각종 다양한 유형의 관지가 나타났다고



12
<백자청화장유산수문잔>
청 17세기 중반~18세기 전반
높이 4.2cm
碗礁 1號沈船遺跡 출수
中國國家博物館
(『中國出土瓷器全集』11,
도197)



13
<백자청화보상화당초문접시> 저부
조선 19세기
높이 3.9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밝혀진 바 있다.⁵⁵

다양한 도안관 중 특히 엽문형 도안은 청대 초기 민요 품 중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 민간 대수용 도자를 비롯해 수출자기에도 흔히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청강희 연간(1662~1722)에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푸젠 碗礁 1호 출수 <백자청화장유산수문잔>^{도12} 굽 안쪽에 시문된 엽문 관지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 전세되는 19세기경 분원에서 제작된 청화백자 가운데 앞서 살펴본 청대 민요품에 나타나는 엽문 도안관과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어 살펴보겠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청화파초문접시>, <백자청화산수문접시>,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백자청화 '己亥九月'명

만자문접시>,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백자청화동채산형연적>,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백자청화보상화문접시>^{도13} 등에서 확인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청화동채송하인물문주자>의 경우 주자 뚜껑에 시문되어 있어 흥미롭다. 특히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백자청화동채산형연적>(1836)과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백자청화 '己亥九月'명만자문접시>(1839)에는 간지가 새겨져 있어, 19세기 초반경 조선백자에 엽문 도안관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엽문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 명말청초 엽문 형태 기물과 장식이 등장한 이유에 대해 망고·복고 분위기에 따라, 송대에 잔, 버루, 침, 반 등 문인 애호품의 장식에 엽문이 응용되었던 경향이 다시 나타났다는 견해⁵⁶가 있어 주목된다. 조선에서도 문인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엽문 장식이 응용된 시전 봉투나⁵⁷ 印章이 소비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엽문은 길상성이 내포된 문인 취향 중 하나로 인식·애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엽문을 이와 상반된 비애적인 의미로 해석한 사례도 있어 덧붙여 논하겠다. 명말청초 정더전 민요를 중심으로 엽문과 함께 '梧桐一葉落, 天下盡

⁵² 일례로 1815년 간행된 가즈시가 호쿠사이(葛飾北齋)의 『北齋漫画』를 들 수 있다. 『北齋漫画』는 에도시대 미술 관련자의 지침서일 뿐 아니라 일반에까지 광범위한 인기를 끌었는데, 각종 식물 패턴에 대한 해설이 도판과 함께 간략하게나마 따로 소개되어 있고, 이에 등장하는 각종 인물, 동물의 복식에서 다양한 식물 문양을 감상할 수 있다. 葛飾北齋, 『北齋漫画』3篇(東京: 藝艸堂, 1984), pp.24-25.

⁵³ 19세기 조선에서 활발히 제작된 내외 측의 면을 깎아 만든 6·9·11·12·16각 등 다각접시 형태와 유사한 예를 일본자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 영향관계가 엿보인다. 최경화, 앞의 글(2014), p.160.

⁵⁴ 馬希桂, 김재열 역, 앞의 책(2014), p.417.

⁵⁵ 謝志明·郭小麗·程堅, 「景德鎮瓷器款識的歷史變遷」, 『中國陶瓷』45(景德鎮: 中國輕工業陶瓷研究所, 2009. 12), p.87; 程立洪·艾正湖, 「論“年款禁令”與清康熙民窯款識品牌意義」, 『中國陶瓷』47(2011. 5), pp.90-92.

⁵⁶ 謝明良, 「關於葉紋盤—從臺灣高雄縣左營鳳山舊城聚落出土的青花葉紋盤談起」, 『(月刊)故宮文物』326(台北: 國立故宮博物院, 2010. 5), pp.36-55.

⁵⁷ 국립고궁박물관, 『명성황후 한글편지와 조선왕실의 시전지』(국립고궁박물관, 2010), p.331.



14
〈백자청화기명문접시〉
조선 19세기 높이 4.2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4-1
도14 저부

皆秋, '紅葉傳書信, 寄與薄情人' 시구가 적힌 〈오동엽문시구청화백자〉⁵⁸가 출현했다. 이 엽문 청화백자 시구의 오동잎을 쇠망한 한쪽으로 비유하며, 엽문을 명이 쇠락하자 민간의 상실감을 드러낸 도상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인 청대 초기 민요에서 유행한 엽문형 도안관 또한 비애적인 의미를 내포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⁵⁹ 흥미롭게도 일부 조선과 중국 문학에서도 오동잎이 그리움 내지 애잔함을 상징하는 소재로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어,⁶⁰ 위 같은 해석이 일정 부분은 타당할 것이다. 중국에서 엽문형 도안관이 청초 강희시기를 중심으로 가장 유행하였고, 청대 중후기까지 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길상적인 의미가 아니었기에 민간에서 오랜 기간 환영받지 못하고 짧은 기간 출현한 것이 아닌지 생각되기도 한다.

한편, 엽문형 도안관이 시문된 조선 후기 백자 중 주목되는 사례가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백자청화보상당초문접시〉^{도13} 굽 안쪽에 엽문형 도안관이 시문되어있는데, 내면에 가득 장식된 보상당초문은 엽문형 도안관이 유행했던 시기 보다 훨씬 늦은 19세기경 중국 민간에서 유행했던 문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⁶¹ 청대 중후기 징더전 민요에서 대량 제작되었던 보상당초문 청화백자에는 두부관 또는 花押款이라 불리는 방향의 제작 공방 기호⁶²를 비롯해 각종 도안관을 시문

58 余家棟, 「南昌發現一批窖藏瓷器」, 『江西歷史文物』(南昌: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pp.38-43; 「江西南昌發現一批窖藏瓷器」, 『文物』(北京:文物出版社, 1984. 4), pp.94-96.

59 堯遲月, 「明清景德鎮梧桐葉落盤紋飾研究」, 『大眾文藝·學術版』(石家莊:河北省群衆藝術館, 2012. 20), pp.286-287.

60 정민, 『책벌레와 메모광』(문학동네, 2015), pp.200-204 참고.

61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조선백자』(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15), p.220, 도168 참고.

62 여기서 말하는 방향의 제작공방 기호는 이중으로 구획된 정방형 안에 짧은 선이 가득 시문된 모양

15
〈백자청화기명문접시〉
청 19세기 높이 2.7cm
개인소장
필자촬영

15-1
도15 저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백자청화보상당초문접시〉^{도13}의 경우 주문양과 관지에 각각 다른 시기 유행한 것이 함께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청대 자기의 영향으로 17세기 후반부터 늦게까지 아리타 자기에 엽문형 도안관이 출현하였는데,⁶³ 엽문 도안관이 새겨져 있는 분원산 〈백자청화 '己亥九月'명만자문접시〉⁶⁴ 역시 〈백자청화만자문다각접시〉^{도9}와 마찬가지로 일본 자기의 요소가 엿보여 청대 도안관이 일본을 통해 조선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상시시킨다.

도안관의 또 다른 사례로 길상적인 의미의 雜寶로 추정되는 도안관이 새겨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백자청화기명문접시〉^{도14}를 들 수 있다. 이와 기형, 주문양 및 관지 양상이 거의 일치하는 19세기경 징더전 민요에서 제작된 〈백자청화기명문접시〉^{도15}가 확인되어, 〈백자청화기명문접시〉^{도14}에 나타나는 도안관은 동시기 청대 민요자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청대 초기 민간에서 유행한 다양한 도안관이 조선 후기 백자에까지 유입되는데, 그 계기와 경로,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으로 낙관처럼 보이기도 한다. 주로 청대 중후기 경덕진 민요 청화백자에 나타나는데, 보상화당초문 청화백자를 비롯해 이와 생산시기, 생산지, 소비성격이 매우 유사한 징더전산 영지초화문 청화백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장효진, 앞의 글(2014), pp.124-127.

63 村上伸之, 앞의 글(1999), p.75.

64 東京國立博物館, 『東京國立博物館圖版目錄-朝鮮陶磁篇(靑磁·粉青·白磁)』(東京:中央公論美術出版, 2007), p.90, 圖331.

IV. 맺음말

이상 조선 후기 백자에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관지 유형을 한국·중국·일본의 문헌 및 출토·전세 유물자료와 함께 비교 검토하여 그 실체와 유입 경로의 여러 가능성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외부 영향으로 조선 후기 백자에 새롭게 등장한 관지는 '대명선덕년제', '만력년제'와 같은 과거 연호관, '복' 등 길상자를 낙관형으로 시문한 길상관, 나뭇잎·잡보 등 도안화된 문양을 관지로 장식한 도안관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백자에 중국 과거 연호관이 방제된 사례는 드물게나마 분원에서 제작된 '대명선덕년제', '만력년제'가 시문된 고급기명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특히 선덕, 성화, 가정 연호관 방제가 활발히 이루어 졌는데, 이른 사례라 할 수 있는 선덕 연호관 방제의 경우 성화 관요에서 시작되었으며, 17세기 이후에는 민요에서도 크게 유행하였다. 명대 중기 이래 문인문화와 함께 골동취미가 크게 유행함에 따라 명 초 높은 수준에 이르렀던 공예품이 골동으로 각광받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소유할 수 없기에 골동에 버금가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과거 연호관을 방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백자에도 드물게나마 이러한 방제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17세기말에 이르면 만명기 문화가 조선에 유입되며 방고·복고 풍조가 중국과 공유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서도 선덕, 성화, 가정 연호관에 비해 방제 사례가 드문 만력 연호관이 후대 조선과 일본 백자에서 확인되어, 특히 만력시기를 중심으로 명대 중후기 징터전, 푸젠 민요에서 제작된 크락자기, 오채자기, 손즈이 등 수출자기기의 방대한 영향력이 증명되었다.

도상 형태인 길상관과 도안관 역시 조선 후기 백자에 새롭게 유입된 관지로 확인되었다. 관요에 연원을 두는 연호관과 달리 길상관과 도안관은 각각 명 초, 청 초 징터전 민요에서 시작되었다. 징터전 민요에서 제작된 수출자기에도 길상관과 도안관이 적극 사용되었으며, 조선과 일본에서도 모방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길상관과 도안관이 시문된 조선 후기 백자 가운데 조형적으로 일본 자기 영향이 엿보이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기면의 넓은 면적에 직물 짜임 문양이 시문된 다각접시가 그것인데, 일본에서 먼저 길상관과 도안관이 유입되고 유행하였기에, 과거 일본에 흡수된 중국 요소가 일본의 또 다른 요소와 함께 차후 조선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일부 조선백자에 모방된 도안관은 동시대 중국과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감지되어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백자에 출현한 새롭고 다양한 외래적인 성격은 동시기

특정 지역과의 직접적인 교류 안에서뿐 아니라, 장기간 이웃 국가들과 다중적으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생성된 것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조선 후기 백자의 외래 요소 중 일부 명대 민요양식이 출현하는 데 약 한 세기 이상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조선 후기 백자의 다양한 외래요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16세기 이후 특히 수출자기로 외부세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중국 민요와 일본과의 관계 또한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주제어 keywords

款識 porcelain marks, 大明宣德年製 made during the Xuande reign of the Great Ming dynasty, 景德鎮 Jingdezhen, 分院 Bunwon, 外銷瓷 export porcelain

투고일 2016년 2월 15일 | 심사일 2016년 2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7일

사료

『景德鎮圖錄 *Jingdezhentulu*』

『燕行記 *Yeonhaenggi*』

『五雜俎 *Wuzazu*』

『在園雜誌 *Zaiyuanzazhi*』

도록

景德鎮市陶瓷考古研究所·徐氏藝術館 Jingdezhen Institute of Ceramic Archaeology Tsui Museum of Art, 『成化遺珍:景德鎮珠山出土成化官窯瓷器 *Imperial Porcelain of the Cehnghua Reign Excavated from Zhushan, Jingdezhen*』, 香港: 徐氏藝術館 Hong Kong: Tsui Museum of Art, 1993.

佐賀縣立九州陶磁文化館 The Kyushu Ceramic Museum, 『紫田コレクション總目錄 *Complete Catalogue of Shibata Collection*』, 有田: 佐賀縣立九州陶磁文化館 Arita: The Kyushu Ceramic Museum, 2003.

Topkap Saray Muzesi, *Chinese ceramics in the Topkapi Saray Museum*, Istanbul: a complete catalogue 3, London: Published in association with the Directorate of the Topkapi Saray Museum by Sotheby's Publications; New York, NY: Available in the USA from Sotheby's Publications, Harper and Row, 1986.

논저

장효진 Jang, Hyojin, 「18~20세기초 中國 靈芝草花文 靑畫白磁의 유행과 전파 The Popularity and Transmission of Chinese Blue-and-White Porcelains with Lingzhi-Floral Design during 18th to Early 20th Century」, 『美術史學研究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282, 2014.

최경화 Choi, Kyunghwa, 「朝鮮後期 分院里 時期 官窯白磁 研究: 1752~1895년 을 중심으로 A Study on White Porcelains Produced in the Royal Kilns during the Period of Bunwonri in the Late Joseon Dynasty(from 1752 to 1895)」,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h.D. Dis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4.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景德鎮市陶瓷考古研究所

참고문헌

School of Archaeology and Museology of Peking University Jiangxi Provinci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Jingdezhen Municipal Institute of Ceramic Archaeology, 「江西景德鎮觀音閣明代窯址發掘簡報 Guanying Kiln of Ming Dynasty in Jingdezhen City, Jiangxi Province」, 『文物 *Cultural Relics*』12, 2009. 12.

北京市文物研究所·北京市西城區文物管理所 Beijing Municip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Xicheng District Office for the Preservation of Ancient Monuments, Beijing, 「北京毛家灣明代瓷器坑發掘簡報 Excavation of Maojiawan Porcelain Pit of Ming Dynasty in Beijing」, 『文物 *Cultural Relics*』4, 2008. 4.

呂成龍 Lu, Chenglong, 「明永樂, 宣德時期景德鎮御窯瓷器概說 A General Introduction of Jingdezhen Imperial kiln Porcelain in Yongle and Xauande Periods of Ming Dynasty」, 『永宣时代及其影响: 兩岸故宮第二屆學術研究會論文集 *The Yongle(1403~1424) and Xuande(1426~1435) Era and Its Influences: The Second In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of the Palace Museum in Beijing and Taipei*』, 北京: 故宮出版社 Beijing: Palace Museum Press, 2011

劉新園 Liu, Xinyuan, 「明宣宗與宣德官窯 Xuanzong and Imperial kiln of Xuande」, 『景德鎮出土明宣德官窯瓷器 *Xuande Imperial Porcelain Excavated at Jingdezhen*』, 鴻禧藝術文教基金會 Hongxiyishuwenjiaojijinhui, 1998.

陸鵬亮 Lu, Pengliang, 「宣爐辯疑 Xuanlubianyi」, 『文物 *Cultural Relics*』7, 2008. 7.

村上伸之 Murakami, Nobuyoshi, 「肥前における明・清磁器の影響 The Impact of Ming and Qing Ceramics in Hizen」, 『貿易陶磁研究 *Trade Ceramics Studies*』19, 日本貿易陶磁研究會 Japan Society for the Study of Oriental Trade Ceramics, 1999.

Foreign Elements in White Porcelain of the Late Joseon Period Based on Types of Porcelain Marks

Jang, Hyojin

ABSTRACT

between Japan and Chinese civilian kilns, the latter of which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outside world through porcelain exports, especially after the 16th century, will be worth further study for a multifaceted analysis of various foreign elements in white porcelain of the late Joseon period.

The porcelain marks that came to adorn white porcelain in late Joseon as a result of foreign influence can be divided into royal reign marks bearing the reign titles of Ming and Qing China, including “大明宣德年製 (Made during the Xuande reign of the Great Ming dynasty)” and “萬曆年製 (Made during the Wanli reign)”; and auspicious marks or motif-inlaid marks, which were tremendously popular in civilian kilns during the two dynasties. The marks mainly appear in fine-quality white porcelain produced in the royal Bunwon kilns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are presumed to have been used by a limited class of consumers due to the small quantity of discovered artifacts. The emergence of imitating porcelain marks and inscriptions in Japan and Korea during this time can be attributed to the phenomenon during the mid-Ming period when literati culture prevailed and collecting antiques became a favored literati pastime, whereby not everyone could possess antiques in reality and therefore attempted to add higher value to contemporary porcelain to match the value of genuine antiques. Therefore, the new and varied foreign characteristics present in white porcelain of the late Joseon period must be understood not only within the context of the nation's direct interactions with certain regions during the same era, but also in terms of the long-term process in which inspirations were exchanged among neighboring nations on various levels and the subsequent outcomes were shared. This study suggests that, among the foreign elements in white porcelain of the late Joseon period, certain styles of porcelain produced in civilian kilns during the Ming dynasty are likely to have been introduced through Japan about a century later. In this sense, the relationship